

글로벌 해치백 ‘쉐보레 크루즈5’ 출시

한국지엠, 고효율 1.8가솔린 및 친환경 2.0 유로5 디젤 엔진 장착



쉐보레 크루즈 5 신차발표회에서 마이크 아카몬 사장(사진 왼쪽)은 크루즈5는 스포티한 개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마리나클럽&요트’에서 차세대 글로벌 해치백 ‘쉐보레 크루즈5’ 모델의 신차발표회 및 시승회를 갖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한국지엠 마이크 아카몬(Mike Arcamone) 사장은 “쉐보레 크루즈5가 혁신적인 디자인, 탁월한 주행 성능과 최고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얻은 쉐보레 크루즈 세단의 높은 명성에 더해 스포티한 개성과 실용성까지 두루 갖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크루즈5는 ‘섹시 앤 스마트(Sexy & Smart)’라는 제품 콘셉트로 매력적인 스타일과 강력하고 다양한 성능을 갖춘 실용적인 해치백 모델로, 쉐보레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물론, 국내 소비자들에게 쉐보레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제품”이라며, “크루즈5”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신형 크루즈5는 디자인, 품질, 주행성능과 안전성 등 모든 분야에서 해치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 GM의 글로벌 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됐으며, 한국지엠이 차량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쉐보레 크루즈 세단과 함께 쉐보레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끌 차세대 글로벌 해치백 모델인 크루즈5는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을 포함,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시장에서 판

매될 예정이다.

◆ 역동적인 외관 스타일
크루즈5는 후드에서 트렁크까지 유연하게 이어지는 아치형 루프 라인과 오우버행이 조화를 이뤄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외부 스타일을 연출한다. 특히, 크루즈5는 동급 최대 전장(4,510mm)과 전 폭(1,790mm)을 자랑하며, 돌출된 휠과 휠 하우스는 차체의 안정감과 측면 볼륨감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이와 더불어 최대 17인치까지 옵션으로 제공되는 대형 알로이 휠은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배가했다.

이와 함께 크롬이 가미된 듀얼 베젤(보석을 깎은 형상) 디자인의 대형 헤드램프는 날렵하고 역동적인 외부 스타일을 연출하며, 헤드램프상단 곡선이 좌/우측 펜더를 감싸며 올라가 측면 바디 라인과 함께 조화를 이뤄 한층 더 다이내믹하다. 또 각진 후드 캐릭터 라인과 슬더 라인이 잘 어우러져 강인하고 세련된 외부 스타일을 자랑한다.

크루즈 5의 테일 램프는 차량 후/측면과 트렁크 크리드에 연결돼 한층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후면 스타일을 연출한다.

세련된 스타일의 LED 보조 제동등과 고급 모델에만 적용되는 4구 일체형 후방감지 센서 등을 장착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멋을 더했다.

◆ 여유로운 실내공간과 고품격 디자인

신형 크루즈5는 동급 최대의 전 폭(1,790mm)과 축거(2,685mm)

를 바탕으로 안정된 승차감은 물론, 성인 다섯 명이 여유롭게 승차할 수 있는 안락함과 넓은 실내공간을 자랑한다.

크루즈5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실내공간을 위해 센터페시아를 중심으로 비행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좌/우대칭으로 설계된 운전자 중심의 ‘듀얼 콕핏(Dual cockpit)’ 디자인을 적용했다. 대시보드와 도어트림에 좌석 시트와 동일한 소재와 컬러를 사용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 크루즈5만의 개성을 한층 부각시켰으며, 고급 소재와 정교한 마감 처리를 통해 품격 있는 실내공간을 연출했다.

또한 크루즈5는 넉넉한 43리터 용량의 트렁크와 뒷좌석 6:4 분할 폴딩 기능으로, 공간 활용성과 화물 적재능력을 극대화했으며, 폴딩 레버가 있어 여성 운전자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크루즈5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센터페시아 및 도어 포켓 등에 마련된 다양한 수납 공간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아이팟(iPod), 아이폰(iPhone),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전자통신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USB포트도 제공한다.

◆ 고효율 ECOTEC 엔진

신형 크루즈5는 고효율 1.8리터 DOHC ECOTEC 엔진과 엄격한 유로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2.0리터 VCDi 디젤 엔진이 장착됐다. 크루즈5에 장착된 6단 자동변속기는 각각의 엔진과 최

적의 조화를 이루고 엔진 성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부드러운 기어변속을 실현, 탁월한 승차감은 물론, 연비도 향상시켰다.

고효율 1,800cc ECOTEC 가솔린 엔진은 ‘더블 가변 밸브 타이밍(DCVCP: Double Continuous Variable Cam Phasing)’ 기술을 적용, 최적의 흡기 및 배기 밸브의 개폐 시기를 조절해 엔진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배기가스도 크게 줄였다. 크루즈5에 장착된 ‘가변 흡기 매니폴드(VIM: Variable Intake Manifold)’는 엔진의 부하와 회전수에 따라 엔진의 공기흡입 경로를 적절하게 변경, 최대 토크 17.8kg.m(3,800 rpm) 및 최대 출력 142마력(6,200 rpm)을 실현했다.

크루즈5디젤 모델은 2,000cc급 직접 연료분사 방식의 첨단 가변 터보차저 커먼레일 디젤(VCDi: Variable Geometry Turbo Charger Common Rail Diesel Injection)엔진을 장착, 유로5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폭발적인 힘과 탁월한 연비(15.9km/l)를 자랑한다.

또한, 첨단 가변 터보차저가 가속성을 한층 더 높여 넓은 RPM 영역에서 고른 최고 성능을 실현, 동급 최고 출력 163마력(3,800rpm) 및 최대 토크 36.7kg·m(1,750~2,750rpm)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확보했다.

◆ 최고 수준 안전성 실현

크루즈5에 적용된 새로운 바디 프레임 시스템(Body Frame Integral System)은 상부 차체와 차체 프레임이 일체형으로 설계돼 더욱 견고하고 안정된 구조를 확보했으며, 안정감 있는 고속주행과 코너링 등 부드럽고 정교한 핸들링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하부 이음방지 및 최상의 제동력을 위한 가스 주입 밸브를 적용한 리어 가스 쇼크 업소버와 튜블러 타입 컴파운드 크랭크리어 서스펜션 장착 등 구조 강화화를 통한 다이내믹한 핸들링도 경험할 수 있다.

크루즈5 1.8 가솔린 모델은(자동변속기) ▲LT 모델 일반형 1,701만원, 고급형 1,808만원 ▲LTZ 모델 일반형 1,762만원, 고급형 1,948만원.

크루즈5 2.0 디젤은(자동변속기) ▲LTZ 모델 일반형 2,050만원, 고급형 2,236만원이다.

SM3 Z.E. 전기차 환경부 실증 사업에 합류

르노삼성차, 주행테스트를 통해 전반적인 검증 실시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장마리 위르피제)는 첫 프리미엄 세단 전기차 SM3 Z.E.를 올 12월 말까지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실증사업에 지원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SM3 Z.E.를 포함한 고속전기차 및 저속전기차들을 가지고 실 도로 운행(사진)을 통해 주행성능, 충전성능 등을 검증

을 실시하고, 전기차종차 및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을 통하여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성능이 보급 가능 수준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전기차종차의 성능향상 유도 및 친환경자동차 홍보, 전기차종차 보급 정책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자동차가 환경부에 공급한 SM3 Z.E.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닌 100% 모터로 구동되는 순수 전기차종차로써 SM3 모델을 베이스로 제작 되어 넓은 실내공간과 우수한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는 1회 충전으로 160km 이상 주행, 최고속력 150km/h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충전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하는 퀵충 방식(교환스테이션에서 약 5분)을 적용하고 있다.

SM3 Z.E. 전기차는 르노에서 올해 9월부터 ‘FLUENCE’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본격 양산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국내에는 2012년 연말쯤 부산공장 등에서 양산체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100여대를 보급하고, 2012년 까지 총 500여대의 SM3 Z.E. 전기차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쌍용차, 「체어맨 H」 뉴클래식 출시

시승고객 페스티벌 개최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사장 이유일: www.smotor.com)가 「체어맨 H」 뉴클래식 출시와 관련, 전국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시승고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체어맨 H」 뉴클래식 출시 시승고객 페스티벌’은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대구 등의 대형할인마트, 소품점, 골프연습장에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실시한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5월 27일 출시하는 「체어맨 H」 뉴클래식을 오는 5월 31일까지 예약하고 7월 말까지 출고하는 고객에게 최대 3%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스마트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 이와 더불어 5~6월 출고 고객에



게는 서울(세종문화회관-삼삼사), 성남(성남아트센터-모차르트)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조수미 리사이틀), 대구(수성아트피아-7인의 음악인들), 광주(문화예술의 전당-메노포즈), 부산(MBC 롯데아트홀-내 마음의 품음) 등 지역별로 뮤지컬, 음악회,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공연 관람권(1인 2매)을 지급하는

『Leader's culture』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체어맨 H」 New Classic 가격은 500S: 고급형 3,990만원 / 최고급형: 4,290만원 / 브라운에디션 4,340만원 / VIP 4,495만원, 600S: 최고급형 4,510만원 / 브라운에디션 4,560만원 / VIP 4,695만원이다.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 연비왕 대회 열어

대전-부산 209.06km 구간 최고 실주행 연비 24.7km/l 달성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는 지난 20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차 쉐보레 스파크의 주행 연비를 확인하고 연비 강자의 위상을 확인하는 이벤트(사진)를 열었다.

쉐보레 홈페이지(www.chevrolet.co.kr) 온라인 참가자 모집을 통해 선발된 총 13팀이 참가한 이번 연비왕 대회는 대전 엑스포 공원을 출발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시내구간을 포함해 총 209km를 달려 부산 해운대까지 진행됐다. 대회 결과, 1위 팀과 2위 팀이 각각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로 실주행 연비 24.7km/l를 기록하며 쉐보레 스파크의 우수한 실주행 연비를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이번 대회에는 지난 3월 경차 실주행 연비 측정 방송 프로그램에서 스파크가 19.6km/l(자동변속기)를 기록했던 당시와 같은 측정기와 방식을 적용해 신뢰도를 높였다.

한국지엠 경차 브랜드운영팀 윤



희정 부장은 “방송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한 실주행 연비가 보도된 후 스파크의 우수한 실주행 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며, “고객이 직접 본인의 차를 가지고 참여해 전원 목표 연비를 달성하며 경제성을 확인하는 한편, 연비 운전 습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최고 실주행 연비 1위를 달성하며 300만원 상당의 1년 주유권을 획득한 조인석씨는 “나날이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차량 구입 시 공인 연비가 아닌 실주행 연비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며, “스파크를 운행하며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1위를 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국토대장정 이벤트 참가자 모집

현대차가 가족과 함께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우리나라 주요 명소를 1박 2일간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시승이벤트를 펼친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오는 6월 20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쏘나타 하이브리드 국토대장정 이벤트」는 6월 25(토)~26(일) 1박 2일간 ‘동해 코스’와 ‘서해 코스’로 구성된 국토대장정 코스를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시승하며 가족 여행과 함께 우수한 연비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승이벤트이다. 이번 국토대장정 이벤트는 현대차 계동사육에서 출발해 삼양목장을 거쳐 정동진 해수욕장에 이르는 동해 코스와 현대차 계동사육을 출발해 보령 해수욕장을 거쳐 변산반도에 이르는 서해 코스로 운영되며, 각 코스별로 10가족씩 총 20가족이 참가하게 된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소순기)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1박 2일간) 충북 제천시 청풍면 소재 「청풍리조트」에서 전국시·도조합 임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8회 R.U.M대회(의식개혁운동·사진)를 개최했다.

금년도에는 대회의 내실화를 기

하기 위해 종전의 진행 방법을 바뀌 교육 운영 전문기관인 지경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에 행사진행을 의뢰해 정예화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분임토의 주제에 부합된 특강과 4명의 분임토의 전문위원을 투입하여 워크시트를 활용, 심도있는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제132차 임시총회 및 워크샵 성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지난 14일, 1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제132차 임시

총회 및 「검사정비업계 현안문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사진)」을 개최하였다. 14일 개최한 제132차 임시총회에서 안동구 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합회는 5,200여 정비사업자들의 업권을 보호하여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정비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전 사업자들이 공익 사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발빠른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경기조합 김경열 이사장은 현행 AOS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및 표준작업시간의 모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있는 업계관련 법안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시도조합의 역할 및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14일 임시총회에서 다뤄진 ‘연합회 부회장 선출의 건’은 다수 이사장들의 뜻에 따라 차기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